

## ▶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상편 ◀

### I 문학의 본질과 구조

- ① 산수유나무의 농사 (30문제)-----1쪽
- ② 서경별곡 (39문제)-----14쪽
- ③ 나상 (44문제)-----35쪽
- ④ 북어 대가리 (42문제)-----62쪽
- ⑤ 나와 남 (18문제)-----87쪽

### 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 ① 이춘풍전 (32문제)-----102쪽
- ②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30문제)-----126쪽
- ③ 세한도 (30문제)-----142쪽
- ④ 메밀꽃 필 무렵 (31문제)-----157쪽
- ⑤ 유충렬전 (32문제)-----177쪽
- ⑥ 울포의 기억 (24문제)-----200쪽
- ⑦ 이옥설 (30문제)-----212쪽

### III 한국 문학의 성격과 위상

- ① 속미인곡 (42문제)-----222쪽
- ② 미스터 방 (30문제)-----245쪽
- ③ 춘향가 (25문제)-----268쪽

◆빠른 전체 정답-----287쪽

◆해설-----290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역 정리

### 핵심 정리

교과서 14-15쪽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성찰적
- 제재** 산수유나무의그늘
- 주제** 산수유나무의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 핵심 정리

교과서 14-15쪽

- 특징** ① 자연물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 ②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함.
- ③ 자연물의 모습과 속성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성찰함.

### 핵심 정리

교과서 14-15쪽

#### 구성

- 1~2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들.
- 3행** 불평을 지닌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권고함.
- 4~7행**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 그늘을 넓혀감.
- 8~9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을 농사지음.

### 꼼꼼 정리

교과서 14-15쪽

- 산수유나무와 사람들의 속성 대비



### 꼼꼼 정리

교과서 14-15쪽

-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 표현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산수유나무의 노란 꽃과 관련지어 그늘도 노랗다고 표현함.

그늘에 봄날의 따스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꽃과 함께 그늘도 나무가 만들어 내는 결과물임을 인식하게 함.

### 꼼꼼 정리

교과서 14-15쪽

-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 표현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드리우는 과정을 농사에 비유함.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산수유나무도 농사 짓는 존재로 보고, 그늘의 가치를 생명을 키우고 베푸는 농사와 같이 값지게 여김.

### 꼼꼼 정리

교과서 14쪽

- 작품 창작의 발상과 표현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사람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드는 것에 불평을 함.

산수유나무

노란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이 편안히 쉬 수 있게 함.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 산수유나무가 만든 결과물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위안과 휴식을 주는 미덕,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 ▶ 1~2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들.

그늘에 대한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표현 → 참신한 발상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 3행: 불평을 지닌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권고함.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 산수유나무와 대비되는 대상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생명을 가꾸고 베푸는 일을 의미함.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드리우는 과정을 농사에 빗댄. → 참신한 발상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을 넓혀 가는 산수유나무 ▶ 4~7행: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 그늘을 넓혀 감.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정성과 노력을 들여 생명을 가꾸는 농부에 빗대어,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미덕을 지닌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드러냄.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문학 사상』(2003)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함.  
 ▶ 8~9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을 농사지음.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시는 봄이 되어 산수유나무에 노란 꽃이 핀 것을 보고, 자연의 정경과 인생의 단면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작품이다. 산수유나무는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난다. 이것을 보고 시의 화자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봄이 되어 저절로 꽃이 피어나는 것이지만 화자는 산수유나무가 능동적으로 꽃을 터트린다고 상상한 것이다. 화자는 사람들이 마음의 그늘이 말려드는 것에 불평을 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쩔 줄 모르고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산수유나무는 노란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화자는 산수유나무가 꽃만 능동적으로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스스로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라는 말은 그런 뜻을 담은 것이다. 산수유나무는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 산수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땅에는 노란 꽃의 그늘을 드리워 아름다운 쉼터를 만들어 준다. 이것이 산수유나무의 농사이다. 화자는 이 농사의 가치를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라고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시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관한 독창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그 모양과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대비된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시를 감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정서적·미적으로 승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문학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산수유나무의 농사” 교과서 문제

1. 이 시를 읽고,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 각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구분	주요 내용
1~2행	노란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들.
3행	불평을 지닌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권고함.
4~7행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 그늘을 넓혀 감
8~9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을 농사지음.

2.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를 감상해 보자.

(1) 이 시에서 ‘그늘’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늘’은 사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에서는 다른 생명들이 휴식이 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산수유나무가 베푸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 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 시구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  
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의미**  
산수유나무가 꽃을 많이 피워 나무 그  
늘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는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과 위안의 공  
간을 제공하는 산수유나무의 정성과 노  
력을 의미한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  
은 땅에서 넓어진다

(3) (1)과 (2)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화자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산수유나무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마음의 그늘이 욱말려든다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다른 생명을 위한 안식처를 넓혀 가는 배려와 미덕을 지닌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것이다.

3. 이 시에 형상화되어 있는 산수유나무의 모습과, 이에 대비되는 인간 세계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산수유나무의 모습	인간 세계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늘을 만들어 다른 이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함. / •다른 생명을 위해 정성스러운 노력으로 안식처를 만들어 제공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음의 그늘이 욱말려드는 것에 불평을 함. / •이기적이고 인식하여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베풀지 않고 살아감.</li> </ul>

4. 산수유나무처럼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은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생과 나눔의 삶의 자세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한 우리의 모습과 대비된다. 따라서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은 이를 접한 현대인으로 하여금 딱딱하고 메마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보다 나은 삶의 자세를 지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산수유나무의 농사” 구절 풀이

교과서 · 14쪽 3행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 ‘옥말려든다’는 것은 안쪽으로 오그라져 말려드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는 것은 마음이 말려들어 좁아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이기적이고 인색하여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을 의미한다. 시의 화자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지 못한 채 남들이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를 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땅에서 점차 넓어지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서 · 14쪽 6~7행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는 것을 ‘그늘 농사’를 짓는 것으로 연결하는 시적 상상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농사’는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생명을 키우는 일련의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얻은 농작물은 다른 생명을 위해 쓰인다. 이러한 점에서 ‘농사’는 정성과 노력, 배려와 미덕의 의미를 나타낸다. 땅에서 넓어지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옥말려드는 ‘마음의 그늘’과 대비된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달리 ‘산수유나무’는 다른 생명을 위하는 마음을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 14쪽 8~9행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농부’는 다른 생명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시인은 산수유나무를 그러한 ‘농부’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산수유나무가 다른 생명을 위하는 배려와 미덕을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벌써’는 산수유나무가 어느덧 결실을 맺은 양이 ‘좁쌀 다섯 되 무게’임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산수유나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늘’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섯 되 무게’는 산수유나무가 맺는 결실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I. ①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제편]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㉞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강일고등학교 (서울)**

1. 위 시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물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이 시상을 이끌어내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 ③ 대립적인 속성의 시어를 대비시킴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유사한 통사 구조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외형률의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참신한 시각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2. <보기1> 제시어 3개를 모두 활용하여 ㉞'그늘'의 의미를 상세하게 문장으로 표현하되, <보기2>에 제시된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보기1>  
 제시어: 생명, 산수유나무, 공간

<보기2>  
 '그늘'의 사전적 의미  
 1. 어두운 부분.  
 2.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  
 3.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처지나 환경.  
 4.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행한 상태. 또는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두운 표정.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3. <보기>의 ㉠~㉣와 관련지어, 위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은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인식적 기능은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체험의 영역을 넓혀주고 사고의 차원을 높여준다는 것이고, 윤리적 기능은 문학을 통해 독자들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적 기능은 문학이 우리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여 정서적으로나 미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 ① 농사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자연물인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다는 표현은 참신한 표현이니까 ㉠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
- ② 산수유나무를 노란 꽃을 능동적으로 터트리는 존재로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은 ㉡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산수유나무의 관념적인 의미를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미의식을 높이게 된다는 것은 ㉢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다른 생명체를 배려하는 산수유나무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지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어두운 계열로 표현되는 그늘을 노랗다고 한 것은 그늘에 봄날의 따뜻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그늘의 새로운 시적 의미를 만들어 냈으므로 ㉣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위 시에서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구를 찾아 쓰시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나)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세계를 체험하고 이해한다. 예컨대 소설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며,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와 인간상을 체험하게 된다. 문학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보는 시야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능력이 그만큼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학은 체험의 영역을 넓혀 주고, 사고의 차원을 높여 주는 인식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독자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된다.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윤리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을 비판하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자신의 앞길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척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문학은 우리의 삶을 고양하고, ㉥공동체적 역동성을 증진하는 윤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산수유나무의 개화에 능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 그늘에 봄날의 따뜻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 ③ ㉢: 산수유나무와 상대되는 성향을 가진 존재다.
- ④ ㉣: 산수유나무가 정성들여 농사지은 결과이다.
- ⑤ ㉤: 산수유나무 열매의 수확량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6. ㉥에 주목하여 (가)를 주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다는 시구를 읽고, 농사는 인간만이 짓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
- ②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봄이 되어 핀 꽃 덕분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구나!
- ③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는 사람은 타자와 상생하고 공존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산수유나무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군!
- ④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어서 타인에게 무심했었는데, 이전 나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산수유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어.
- ⑤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땅 위에 피운 또 하나의 결실로 표현한 것은 자연의 특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통찰한 것이군!

**현대청원고등학교 (울산)**

7.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의 '그늘'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 '새'
- ②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허로 훑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젓꼭지처럼 까맣다.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 ③ 열다섯 어여쁜 아가씨  
 부끄러워 말없이 헤어지고는  
 돌아와서 겹문을 닫고는  
 배꽃에 걸린 달 향해 눈물 흘리네  
 -임제, '무어별'
- ④ 산이 저문다. /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해기가 없다.  
 애기 앓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김광균, '은수저'
- 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山)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신동엽, '산에 언덕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이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들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별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나)

'산수유나무'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관한 독창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그 모양과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대비된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한다. 이 시를 감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정서적·미적으로 승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문학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다)

문학에서 가치 있는 내용은 언어로 형상화되어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때 형상화란 감정, 관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요소를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어 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문학이 언어적 형상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8. (나), (다)를 참고하여 ㉠~㉣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한 것으로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산수유나무를 능동적으로 꽃을 피우는 존재로 상상하여 표현한 것으로 독자가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 통념을 벗어난 표현으로 '꽃'은 부정적 이미지로, '그늘'은 긍정적 이미지로 그려져 참신한 느낌을 준다.
㉢: '그늘'의 가치를 형상화한 것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이로 하여금 정서적·미적으로 고양된 삶을 살도록 이끈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금촌고등학교 (경기)**

9. (가)와 <보기>의 시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다 쭈뼛쭈뼛 훑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① <보기>와 달리 (가)는 청유형 문장을 반복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② <보기>와 달리 (가)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달리 <보기>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와 달리 <보기>는 시적 대상인 자연물을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나타냈다.  
 ⑤ (가)와 <보기> 모두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10. ㉡에 쓰인 비유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비유를 통해 제시되는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서술하시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I-1 산수유나무의 농사

1.④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은 없음.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1.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생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나면 대구법이 됨.

2.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 **응, 헛갈리지 마!** ◀

사물 vs 자연물

-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3.⑤

①, ②, ③ ㉠을 보여줌. ④ ㉡를 보여줌.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1.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 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 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 공감각 ]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 복합 감각 ]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1. 관념적=추상적=공상적 VS 구체적=실제적=현실적 (★)

5.⑤

▶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임.

▶ **넣어둬, 패턴 공략** ◀

선지에 <감각>이란 말이 나오면 시각(보이는 것), 청각(소리), 촉각(피부의 느낌), 후각(냄새), 미각(맛)과 관련지어라!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중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빼고 시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일단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6.④

- ▶ 타인에게 무심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다짐을 하기에 ④가 가장 적절함.
- ③ 독자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후원이기에 적절치 않음.

7.②

▶ 그늘과 열매 하나는 다른 존재를 위한 배려를 나타냄.

◆주제 저장소◆

- ① <새>: 순수한 삶의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 비판
- ② <가을 떡갈나무 숲>: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떡갈나무 숲의 아름다운 모습
- ③ <무어별>: 이별의 슬픔
- ④ <은수저>: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
- ⑤ <산에 언덕에>: 그리운 이가 추구하던 소망의 실현에 대한 염원

▶ **됐다, 1등급 조언** ◀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8.④

▶ ㉠ ‘꽃’은 긍정적임.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9.⑤

▶ ‘산수유나무’↔‘불평하는 사람들’ / ‘진눈깨비’↔‘함박눈’처럼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우리가 눈발이라면>

- \*주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 또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자.
- \*해제: 화자는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남루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려고 한다. 이 시의 잔잔한 감동은 화자의 이러한 소박하면서도 맑은 심성에서 비롯되는데,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 또는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는 힘든 세상살이를 낳는 우리의 사회 현실과 이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말한다.

▶ **됐다, 1등급 조언** ◀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도 없는, 외부 작품이 시험에 나올